

“먹고 살기 막막”...학교주변 상가들 고사위기

부분등교·원격수업...감염 우려에 외출 자체 서점·분식집 등 매출 작년보다 80~90% 줄어

“매출이 완전 바닥입니다.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대학가는 물론 학교 주변 상권이 초토화 됐다.
일선 학교 주변 상권은 부분 등교와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기회조차 없으며, 대학가는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접촉을 꺼려 집과 원룸 밖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기 때문

이다.
매출도 작년보다 최대 80~90% 줄어 거의 폐쇄할 정도로 혹독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광주 D여고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9일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는데 무슨 책이 팔리겠느냐”며 “매출은 완전 바닥이고, 월세 내기도 벅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점은 3월, 9월 신학기 장

사로 1년을 먹고 사는데, 이 기간에 원격수업이 이뤄져 타격이 너무 크다”며 “학교 주변 서점들이 문 닫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주변 S고와 K 여고 주변 일부 서점은 최근 며칠째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광주 Y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 겸 문방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아이들이 등교해야 슬러시와 떡볶이를 파는데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 매출이 제로에 가깝다”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초·고·보편이나 대학가 주변 상권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대다수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해 삭막한 캠퍼스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고시텔을 운영 하는 김모씨는 “지방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광주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보니 고시텔과 하숙집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작년에는 전체 방 50개 중 5개기량만 비었는데 지금은 40개 기량이 텅텅 비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충장로, 상무지구 등 일반 상권과 비교해 학생들이 주 고객인 학교 상권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더 세게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거론되는 등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요원 해지면서 이들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다.
서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이뤄질 텐데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광주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다음 달까지 대학생 등교가 전면 중지돼 가게를 접어야 할지 아내와 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도 고심이 크겠지만, 자영업자들 생계 문제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조기철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0~27	순천	20~29	광양	20~28
나주	19~28	목포	21~26	여수	21~25

일출 06:12 일몰 18:47
월출 23:24 월몰 13:16

장성	20~27	흑산도	19~25
담양	20~28	구례	19~27
화순	19~27	곡성	19~28
영광	20~27	완도	20~27
함평	19~27	강진	20~28
무안	20~27	장흥	19~27
영암	19~27	해남	19~27
진도	20~27	고흥	19~27
신안	20~27	보성	19~27

목포	만조 06:34 19:27	여수	만조 00:43 13:59
	간조 11:47 --:--		간조 07:09 19:5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상습 성희롱 인격모독’ 피해 광주시립극단 대책위 출범

“2차 가해 발생...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인격모독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호소한 광주시립극단 비상근단원들과 연대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권 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 극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립극단 측이 오디션 등을 통해 작품별로 비상근 단원을 선발하는 ‘작품별 단원제’로 인해 소수의 상근 직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폭력적인 위계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원 단원들이 피해를 호소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시립극단 측의 어떤 사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상습적인 성희롱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립극단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부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 상근 단원들이 예술인들에게 가한 노동인권 침해와 부조리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광주시립 예술단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립극단 직원 등 4명은 “공연을 연습하다가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을 앞둔 여배우에게 ‘살을 뺏어야지’ 등 인격모독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울여름 날씨 이번 속출

선선했던 7월과 긴 장마, 많은 비 등 여름 광주와 전남의 날씨는 이번이 속출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기온은 22.8도로 평년(24.7도)보다 2도가량 낮았다. 월 최고기온도 26도로 이른 더위가 찾아온 6월(26.8도)에 못 미쳤다.
7월 최고기온이 6월보다 낮은 여름은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5.3일로 평년 수준이었으나 열대야는 16.8일로 평년 8.5일보다 많았다.
폭염일수는 광주가 13일로 가장 많았고, 최장 지속일수는 장흥이 7일로 가장 길었다. 열대야는 목포가 26일로 가장 많이 기록했고, 최장 지속일수도 19일로 가장 길게 이어졌다.
여름철 강수량은 995.3mm로 1973년 이후 7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515mm의 비가 내렸는데 여름철 평년강수량(788.3mm)의 68%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장마는 6월 24일에 평년보다 하루 늦게 시작해 7월 말까지 38일 동안 이어졌는데 평년보다 6일 길었다. 장마철 광주와 전남의 강수량은 507.2mm로 1973년 이후 7번째로 많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한반도 주변에 찬 공기가 자리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쪽과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성추행에 폭행까지...광산구청 공무원 일탈 잇달아

광주에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과 경찰관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잇달아 입건됐다.
9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인 A 과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A 과장은 지난달 6일 저녁 9시 45분께 광산구청 인근 한 주

점에서 여성 손님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A 과장은 업무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 서 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7급 B 주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주무관은 지난달 15일

밤 10시께 광산구청 인근 다른 횡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다.
광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수해 발생 등 비상사태에서 공무원의 일탈이 잇따르자 기강 다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봉 기자

‘거리두기 준3단계’ 자영업자 자해 소동

사회적 거리 두기 ‘준3단계’ 조치를 10일간 연장하기로 한 광주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9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3단계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 기자

엑스페론 앱 회원가입하면

1000만원

출판권 이벤트가 무료!!

엑스페론 APP

스토어에서 엑스페론 앱을 설치하세요!

WWW.XPERON.CO.KR

Xperon 골프과학의 정점을 찍다!

Dual Balance Alignment Golf Ball

차원이 다른 엑스페론만의 기술!

골프공마다 인쇄되어있는 퍼팅라인 과연 정확할까요? 현재 생산되는 골프공의 99% 이상이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고 퍼팅라인을 인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엑스페론 골프공은 다릅니다!

듀얼밸런스를 잡아 퍼팅과 드라이버 방향, 거리까지 잡는다! 정확한 각도계산, 편안한 퍼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듀얼밸런스 얼라인먼트 기술의 탄생!

엑스페론골프(주)의 엑스페론 시리즈는 세계 최초! 특허공법으로 골프공의 퍼팅라인 위치를 정확히 찾아 제조하고 있습니다.

골프공의 단면을 보면 코어가 한쪽으로 치우쳐있어 골프공의 무게중심도 한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은 공은 똑바로 구르지않고 공의 무게를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골프공의 단점을 엑스페론이 확실하게 잡아주었다.

(TA, CA, VA 등 공의 단면사진)

Xperon 골프용품 자동판매기

Golf Equipment Vending Machine

X-Machine 24

골프용품의 비상적인 유통구조를 탈피! 골프시장의 새로운 시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엑스페론이 만들면 다릅니다!

- 모델명 : X-Machine 24
- 상품적재량 : 18갑철(3열6단)
- 상품반출방식 : Dual Spiral Type
- 모니터 : 21.5 터치, wifi
- 전면유리 : 강화유리 6mm
- 상품조명 : 형광등 type LED X 2
- 금전처리 : 신용카드 리더기 (카드전용)
- 시전장치 : screw type key
- 중량 : 약 220KG

X-Machine Duel

기존 모델 대비 43인치 모니터로 광고 영역을 확장하여 용량 수인과 더불어 다양한 무료 광고 수익을 제공합니다. 32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더욱 더 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모델명 : XGVM 39 Duel
- 상품적재량 : 39갑철
- 상품반출방식 : Vending Type
- 모니터 : 43인치 광고 스크린 32인치 터치 스크린
- 금전처리 : 신용카드 리더기 (카드전용)
- 상품투출구 : 도난방지장치 적용
- 시전장치 : screw type key
- 중량 : 약 250KG

네이버 검색창에 "엑스페론" 을 검색해 보세요!

자판기창업문의 및 고객센터 : 02) 6008-0233